

3

지역의 정체(停滯)와 변화(變化)에 대한 주민의 기억

손 동 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ndawn@naver.com

목차

1. 들어가며
2. 대상 지역의 특징과 구술 배경
 - 2.1 경기도 연천군 신망리
 - 2.2 철원
 - 2.3 김포
 - 2.4 시흥시
3. 정체와 발전의 실체
 - 3.1 발전에 대한 공감과 차이
 - 3.2 살아있는 박물관
 - 3.3 착시 또는 기억의 굴절
4. 맺음말

1. 들어가며

모든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한 정체와 변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기만 한 지역도 없고, 모든 것이 계속 변화만하는 곳도 없다. 정체와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과 바람의 '실체'는 무엇일까?

주민들에게 '변화와 발전'은 '살기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살기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것일까?

한편, '변화와 발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의미로 '정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모든 변화와 발전은 무조건 선(善)일까?

최근 몇 년간 필자가 구술인터뷰를 수행한 김포, 철원, 연천, 시흥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내력과 현재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누구나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물론 저마다 바라는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역, 세대, 사람 간의 차이는 있다.

지역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발전의 실체에 대한 공감이나, 발전의 실체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면서 무조건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머지않아 큰 오류에 직면할 수 있다. 어쩌면 오류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구술자들의 '발전'에 대한 견해는 스스로 겪은 삶의 경험과 우리사회의 경험('역사'라고 해도 좋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내용을 말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발언들마다 등장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지역발전의 요구와 관(官)에 대한 바람은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역사자료 확보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권 역사서술과정에서 주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주민의 일상, 기억, 경험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기 위하여 기록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산 영도구와 영도문화원이 주관한 "마을을 기억하다"의 사례도 일부 참고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구술기록은 역사서술의 공백을 메꾸거나 사실을 재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역사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관에 대한 평가와 바람을 통해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행정적, 정치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또한,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대안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한적이거나 몇 지역의 구술내용을 통해 지역 정체와 변화의 실체와 이에 대한 구술자들의 의식을 살펴 보면서,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상 지역의 특징과 구술 배경

2.1 경기도 연천군 신망리

신망리(信望里)는 행정지명으로는 상리(1리, 2리)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11월 11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최초로 수복한 지역으로, UN군이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100호의 집을 지어 주민들을 정착할 수 있게 하면서 “신망리(New Hope Country)”¹⁾라고 이름붙인 것이 지금의 마을이름이 되었다.

구호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집들은 도시계획 차원으로 신망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획정리를 통해 배치되었다. 주민들의 기억에 따르면 좁게는 80여평 넓게는 120여평의 대지에 방 2개와 부엌이 실내에 배치되었고, 화장실은 마당에 있었으며, 줄을 맞춰서 가옥이 건축되어 여름에 창을 열어놓고 지낼 때면, 맨 앞집에서 여러 집이 줄줄이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망리 지역이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인데,²⁾ 주춧돌이 없이 집을 지었고, 내부를 넓게 활용하고자 부엌 등을 내어젓는 주민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옥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해서, 현재 남아있는 두 채의 구호주택도 집이 기울어 있거나 허물어져 있어서 그대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림 1〉 신망리에 남아있는 두 채의 구호주택 (2016년 1월 촬영)

1954년 신망리가 조성될 때 구호주택 100세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하나도 없고, 연

1) 기존에 영문명이 “New Hope Town”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구호주택 건설 후 마을 입구에 아치형으로 “New Hope Country”라고 간판을 세웠던 사실이 이원형 선생의 증언으로 확인되면서 정정되었다.

2) 신망리 권숙자님 구술내용 중

천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천 역전에 있는 급수탑 두 개, 연천초등학교 금융조합 건물은 다 없
어지고 금고만 하나 남아있고, 거리는 온통 축대밭이고 잿더미로 까맣게 쌓여있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구호주택을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남기고자 열망하는 이유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정
착한 그곳에 자신들의 땀과 눈물, 노동과 기쁨이 온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대부분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연령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마을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
로 접경지역으로서 기존의 안보교육의 현장으로만 알려져 있던 인식을 극복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발굴 등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2006년 1월 지역주민 6명을
인터뷰했다.

2.2 철원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도읍으로 알려져 있는 철원은 현대사에서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 접경지
역이 되어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
단되면서 철원군 전역이 38선 이북에 위치하게 되었다가³⁾ 6.25전쟁 이후 국군의 북진에 따라 일
부 지역이 수복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해 구 김화군 중 8개 읍면(김화, 서
면, 근북, 근동, 근남, 원동, 원남, 임남)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되
었으며,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 2395호에 의해 전 철원군 북면 유정리, 흥원리와 내문면 독검
리를 철원읍에, 전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갈말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
호로 철원군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입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 9409호
로 갈말면이 읍으로, 1980년 대통령령 제 10050호로 동송면이 읍으로 승격 4읍 7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시범사업(공공예술+지역재생)의 일환으로 ‘고석정-전
환’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는데, 철원의 상징적인 장소인 고석정이 갖는 고유 정체성을 회복하
고 지역주민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활동해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이었다. 이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철원주민 6명을 인터뷰한 바 있다. 토박이, 이주민, 20대의 젊은 세대를 대상
으로 철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에 대한 의식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3) 이 시기에 북측에서 설치한 노동당사가 현재에도 폐허가 된 채 남아있어서 안보교육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4)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www.cwg.go.kr> 2018. 5. 1. 검색)

2.3 김포

김포는 1998년 시로 승격한 후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서울에 인접하면서도 서울과 강화사이의 지역정도만으로 인식되며 부분적으로 북한의 개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토단층이 발견되어 한반도 초기인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주민들은 최근 신도시가 개발될 때까지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했다. 김포군 시절 김포공항지역은 서울로 편입되고, 계양과 검단지역은 인천으로 편입되어 관할 지역의 규모가 축소되었다.⁵⁾ 시승격 이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서 현재 약4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토착주민이 3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나머지는 모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입된 이주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생활 속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전문적인 문화예술 시설운동을 위해 2015년 12월에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했다.⁶⁾ 재단에서는 ‘김포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는 토착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인터뷰를 해 오고 있다. 우선 행정, 문화분야의 원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상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술대상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자 하고 있다.

2.4 시흥시

시흥시는 경기도 안산시 및 부천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이라고 불리는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와 과거 염전이었던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갯벌을 주민의 휴식과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1989년 시로 승격되어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데, 시승격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술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지난 2007년 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흥시사』를 발간하면서 사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를 수행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주민들의 일상에 친착하여 시흥지역에 대한 심층조사 및 사료와 이야기 발굴 등을 위하여 시화국가산업단지, 군자·소래 염전 등에 대한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같은 시기 지방분권 및 자치실현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의 한 프로그램으로 2015년 ‘마을기록학교’를 운영한 바 있는데, 이 강좌의 졸업생들(10강좌 중 80%이상 수강)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기록활동가 모임 ‘걸뚝’에서 지역주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5) 제56회 경기도 김포시 기본통계 참고

6)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cf.or.kr> 2018. 5. 1. 검색)

위의 사례와 함께 2016년 부산시 영도구와 영도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지역기록사업의 결과물인 『마을을 기억하다』⁷⁾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대상지역은 ‘흰여울문화마을’로서 부산의 송도를 마주 보는 절경이 아름다워 ‘제2송도’라고 불리던 마을로서 봉래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많아 지반이 약하고, 언덕이 가팔라서 집을 짓기 어렵던 마을이 1950년대 피난민들이 각지에서 몰려들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소개되고 있다.⁸⁾ 이 지역 또한 정체와 개발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관에서 주관하고 민간에서 인터뷰를 수행한 후, 결과를 책자형태로 재가공하여 발간한 바 있어 본 주제와의 연관성 면에서 참고하였다.

3. 정체와 발전의 실체

3.1 발전에 대한 공감과 차이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철원과 연천은 상대적으로 정체가 오래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시흥과 김포는 꾸준히 변화하며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은 달라도 어느 지역이나 발전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들여다 보면 조금씩 다른 차이도 있다.

연천 신망리 주민들은 행여나 하고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신망리를 가꾸고 만들어 가고 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 올바른 역사인식, 공동체 삶의 가치와 이러한 내용을 후세대에 전달하는 것 까지 신망리 주민들은 앞서서 기다린다고 보다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⁹⁾

신망리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 목축업에 종사한다. 시계가 없을 시절 농번기에는 해가지면 일찍 나가서 일할 요량으로 잠들었다가 한잠 자고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면 참을 두 번 먹어도 해가 안 뜰때도 있었다고 하니¹⁰⁾ 아마도 전날 밤부터 일을 했을 것이다 싶다. 주 농사 외에도 텃밭 일, 목축, 집수리 짧은 날 하루라도 발뻘고 쉬어본 적인 없는 삶들이다.

노동은 끝이 없다. 농사에 집안일에 육아만으로도 부족해 장사도 했다. 먹고 살아야 했고, 아이들은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 몰랐다는 것이다.¹¹⁾

이 들 중에는 평생 일을 해도 물려받은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가슴 먹먹한 삶도 있다. 한때 농사가 잘되고, 소, 돼지가 잘되서 그때 모은 돈으로 자녀들을 도회지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렇게 쪼들리지 않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삶도 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도 이들은 마을안에서 모두

7) 부산광역시 영도구·영도문화원, 『마을을 기억하다』-흰여울문화마을 주민대백과-, 2016

8) 『마을을 기억하다』서문 참조

9) 신망리 윤여선님 구술내용 중

10) 신망리 홍광현님 구술내용 중

11) 신망리 정순이님 구술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동네에서 혼인이 있으면, 닷 되던 한 말이던 형편껏 막걸리를 가져오고, 국수도 가져오고, 가져온 국수는 동네 젊은이들이 큰 가마솥을 걸어 국수를 삶고 혼주집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먹곤했던 시절을. 장례가 생기면 동네 사람이 모두 모여서 사람 손으로 구덩이 파고, 상여 매고 시신을 산까지 모시곤 했던 시절을.¹²⁾

평상시에도 음식을 나눠 먹는 건 다반사였다. 신망리 사람들은 농한기에 어떤 놀이를 하기보다는 떡국을 해서 나눠먹는 게 하나의 놀이이고 문화였다. 오늘 내가 떡국을 끓인다고 하면 다들 불러서 같이 먹고, 내일은 또 다른 집에서 부르면서 가서 먹고 한 달 동안 계속 떡국만 먹은 적도 있다는 것이다.¹³⁾

이 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세대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거 아니에요?’ 구호주택이라도 남겨 놓자는 소망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구호주택 남겨주면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한다던가, 관광지를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상업적 목적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면 안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불과 60여년 전에 치렀던 동족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심각했는지, 잣더미 땅에 들어와 평생을 살아 온 사람들이 삶은 어떠했을지, 후세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¹⁴⁾

발전에 대한 이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동네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군수님한테 요만한 벤치하나 없는 동네는 우리 동네 뿐이다. 여자 이장 나왔다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데,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큰 선물 하나 주세요. 해서 게이트볼 장 유치했어요.”¹⁵⁾

한편, 부산 흰여울 문화마을의 주민들은 타지역에 대한 상대적 정체를 안타까워하며 주거환경을 비롯한 전면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다.

“발전이 제일 안 된 데가 여기라. 아파트 짓고 그럴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까지 사십 년 동안은 그대로라 이거야.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사십 년 전에도 이대로 살았지. 동네 풍경이 하나도 바뀐게 없어. 길만 좀 바뀌고 신성동 길 포장 됐고.”¹⁶⁾

“여기를 좀 활성화해달라고, 우리 영선아파트 외국 사람이 2층 버스타고 온대, 외국 사람도 많이 온대. 창피스럽다니까, 이거. 오는 사진사들 많아. 구경오는 애들도 있어. (중략) 이번 태풍 때 오래되니까 무너질 확률이 많아. 온데 균열이 가 있거든. 그러든 여 사람 사람을 이주를 시키던가,

12) 신망리 이광일님 구술내용 중
 13) 신망리 홍광현님 구술내용 중
 14) 신망리 권숙자님 구술내용 중
 15) 신망리 권숙자님 구술내용 중
 16) 『마을을 기억하다』, 57쪽 박기선님 구술

안 그러면 영도구청에서 이거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를 다 이주시켜서 확 할
어가 좋은 데를 짓던지.”¹⁷⁾

시화공업단지의 경우는 공단지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발전의 요체라고 보는 인
식이 지배적이다. “(공단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시화공단은 거의 85% 이
상이 50인 이하 사업장이고 근로자들 상황을 보면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고 봐요. 구로공단이 개
발되면서 밀려온 건데 국가정책으로 왔지만 국가에서 크게 투자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시에서
도 자체 예산이 어려우니 못하고, 국가산업단지이니까 세수의 분할을 좀 더 많이 해줘야 근로자
들 상황도 좋아집니다.”¹⁸⁾ 이와 함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입을
모아 바라고 있다.¹⁹⁾

이에 비해 김포지역의 원로들은 문화적으로 발전해야 지역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면서, 외
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발전을 바라는 이들은 대부분 그 전제조건으로 관의 세심한 행정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시흥
의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시청의 과장이 찾아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차례 제확인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제시했던 것을 매우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었
다.²¹⁾ 주민들에 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나 투자와 같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처럼 세심한 소통과 배려가 더욱 절실할 지도 모른다. 투자나 공사도 주민의 요구에 부합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발전으로 인한 효과는 일자리 창출, 육아 및 교육 등 생활적인 면으로 수렴된다. 지역이 발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사회적 육아시스템이 갖
추어져야하고 교육이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무엇인가 결과물로서 뚝 떨어지는 금전적 투자나 대규모 공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세대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젊은이들이 큰 도시로 진학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도 어찌보면 단순하다. 대도시에서 영위하는 정보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만 있다면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무조건 이 지역을 떠나서 살고 싶다’는 젊

17) 『마을을 기억하다』, 39쪽 송순옥님 구술

18) 『시화공업단지 현장 심층조사 및 사료·이야기 정리사업 최종보고서』, 24쪽, 이태성님 구술

19) 『시화공업단지 현장 심층조사 및 사료·이야기 정리사업 최종보고서』, 47쪽~52쪽, 시화공단 노동자들 구술

20) 『김포 근현대 역사문화 구술채록사업 녹취문』중 김기승, 신중균 구술내용

21) 『결뚝』- 그 첫 번째 기록-, 75쪽~76쪽 정경님 구술 내용

은 세대의 욕망과 ‘젊은이들이 지역을 지키고 일해야한다’는 기성세대의 대립만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²²⁾

3.2 살아있는 박물관

많은 구술자들이 저마다의 표현으로 역사와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성장 못지않게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며 지역사 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²³⁾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화재를 간과하는 경우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개발을 저지하고 선보존 후개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²⁴⁾

한편, 1950년대에 국립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시흥의 염전에 취직하여 기술적으로 종사하며 지역을 지키고자 했던 한 원로인사는 “시흥에서 역사를 말할 때 염전을 빼고는 말할 수 없거든, 천 정보가 넘었는데 흔적도 없어. 박물관이나 전시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신도시가 되다보니 흔적도 없어. 내 생각에는 생태공원에 시범염전 하나뿐인데, 박물관 같은거 만들고, 소금 종류나 도구라도 전시해서 후대들에게 선조들의 삶을 전해줬으면 해.”²⁵⁾ 라고 담담히 지역의 근본을 환기해 준다.

부산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조그만 수퍼를 운영하셨던 분께 당시 장부를 다 갖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내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걸 버리기 싫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여줄 것도 있고.”²⁶⁾라고 대답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신망리에서 들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리 내지는 여기 연천군이 잿마당이었던 거. 그지요? 다른 데는 사람들이 피난 나갔다가 들어와서 빈 집에 와서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집터 흔적도 없는 데가 여기야. 정말. 다 부서져가지고 집터 흔적도 하나 없는 데가 여기인데, 그 잿마당에다가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세대들한테 전쟁 때, 난리 때 이렇게 저렇게 굶었다 그러면 왜 라면도 못 끓여먹었냐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놔두면, 상리를 떠나면 연천의 역사인데 모르잖아. 전쟁의 포화를 가장 많이 겪은 지역이었다는 거를 애들이 모를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사실은 그렇게 몰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그렇게 됐던 동네고 뒤범벅이 돼갔고서 폐허

22) 철원주민 인터뷰 중 송수연님, 정점숙님 구술 내용

23) 『겉뚝』- 그 첫 번째 기록-, 42쪽 민병섭님 구술 내용

24) 『겉뚝』- 그 첫 번째 기록-, 90쪽~91쪽 박영홍님 구술 내용

25) 『군자·소래염전 현장 심층조사 및 사료·이야기 정리사업 최종보고서』, 101쪽, 김진관님 구술

26) 『마을을 기억하다』, 67쪽, 이종석님 구술

였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애들만 있을 때는 정말 흔적이 없잖아. 여기가 왜 그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흔적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역사라고 하면 거창하고, 연천의 역사를 엮어갈 때 그래도 그것도 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지.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전쟁을 심각하게 겪었는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인식을 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거지.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이다음에 애들이 “이 집이 왜 생겼어?”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물어봤을 때 그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료가 되지 않을까. 그거예요.”²⁷⁾

이처럼 삶의 흔적을 남겨놓는 일, 그것만으로 더 바랄 것 없다는 주민들의 말은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가치있게 생각해야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신망리는 유일하다. 신망리가 태어난 배경, 신망리 주민들의 삶, 신망리의 오늘 그리고 내일.

어쩌면 자신들의 삶을 보상받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고 가치가 있었다는 것, 우리들의 일상도 남기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작은 소망이다.

3.3 착시 또는 기억의 굴절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특이한 점들이 있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이 다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줬다’는 식의 표현이다. 심지어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책임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했던 공무원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모두 했다”고 하기도 한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화장실을 만들어줬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산업화 우선논리에 따라 개인의 삶은 국가 정책에 비해 뒷전으로 밀렸던 정서를 보게된다. 이러한 기계적 사고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적 폭력을 동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군사독재시절 국가폭력의 폐해와 후과가 현재에도 살아있는 듯하다.

두 번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폐해에 대한 관용이다. 관공서간에 업무협조를 위해 전화를 걸면 직급을 확인한 후 무조건 상급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던 일화, 공무원조직에서 결재를 받는 상급자가 결재내용을 문제삼아 하급자를 폭행했던 일화,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주민의 사유지와 집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민에 대해 욕설과 폭행도 서슴치 않았던 일화 등을 그저 그시절의 ‘에피소드’로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 경우이다.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27) 신망리 권속자님 구술내용 중

4. 맺음말

결국 발전의 요체는 무엇인가? 내가 사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다. 구술자들이 말하는 살기 좋은 곳이란 익숙하고, 편하고, 정이 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전은 대규모의 자본투자나 공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본의 투자나 대규모 공사는 과정일 수 있다. 결국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태어난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일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정상적인 일상'인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대도시를 찾아 이주하는 현재의 삶의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 경기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살아가는 구조는 가히 기형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개발은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정체는 점차 해소될 것이다.

이때 개개인의 삶의 흔적은 구술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남겨져, 서로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미래의 나침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평생 놀아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먼저 간 배우자는 놀아보지도 못하고 저세상에 갔다고 안타까워 하는 정서, 타 지역에서 전근 온 교사들이 준비물을 사오라는데 준비물을 파는 곳이 없어서 난감했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허탈하게 말하는 청년. 이런일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는가.

신망리 권속자 이장이 시로 표현한 사람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애착, 관계의 소중함을 결론에 대신한다.

입춘²⁸⁾

떡어도 서러워서
설
이라 했는가

입어도 추워서
입춘
이라 했는가

구만리 하늘에 가마귀 외롭고
귀향했던 사람들
보내고 외롭다

살가운 연민이야
뉘 가슴
다르랴마는

에똥한 흔적이
독야 시린가

28) 권숙자, 『입진강의 봄』, 2007, 문학과 현실사, 18쪽